

막 오른 2월국회... 총선 전초전

與 "200여건 민생법 처리"... 보수 野 "선심 법안 처리 저지" 민주당은 이날 이날 임시국회에서 20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임시국회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른바 감염병 3법(감염병·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더해 상임위에 계류된 주요 민생 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4·15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7일 막을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임시국회는 야당 심판론을 내세운 여당과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야당 간의 총선 전초전 성격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이날 임시국회에서 20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임시국회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른바 감염병 3법(감염병·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더해 상임위에 계류된 주요 민생 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 민생법안 244건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 지기를 손꼽아 기다려왔다"면서 "하지만 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되며 민생·경제 법안을 불모로 잡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2월 임시회조차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한다면 국민들의 뜨거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1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감염병 사태 대응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보수 야당은 우선 법안 처리와 관련해 코로나 19 대응 등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면서 경제 실정을 뒤흔기 위한 선심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또 추미애 법무 장관의 탄핵 필요성도 계속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청와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 세력이 결집한 미래통합당(약칭 통합당) 출범으로 국회 구도가 3개 교섭단체와 5개당 체제로 재편되며 2월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요동칠 전망이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출범식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정을 감당할 능력도,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부도덕하고 무능한 정권"이라고 비판한 뒤 "우리 모두 통합의 기세를 몰아서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말했다.

이번 국회는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두는 옛 국민의당 계열 3개 정당이 공동 교섭단체 '민주 통합 의원 모임'을 구성함에 따라 선거구 획정 협상도 3자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선거구 통합 협상에 대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협상은 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이후 냉각기를 가지는 동안 국민들께서 법사위 계류 법안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정병국, 이인주 의원, 장기표 통합신당준비위원회 위원장 등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출범식 '2020 국민 앞에 하나'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3년만에 보수 뭉쳤다

미래통합당 출범

보수진영이 추진한 미래통합당(약칭 통합당)이 4·15 총선을 58일 앞둔 17일 공식 출범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을 기치로 삼아 보수 단일대오로 이번 총선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보수진영의 통합은 지난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새누리당이 분열한 이후 3년여만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합친 민주통합당(가칭), 정의당, 안철수 전 의원의 국민의당(가칭) 등 5개 정당 구도로 치러

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에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통합당(전진4.0(전진당) 등 3개 원내정당에 재야의 옛 친이(친이명박)계 및 보수성향 시민사회단체, 옛 안철수계 인사들, 일부 청년정당 등이 집결했다. 한국당을 비롯한 기존 보수 정당이 주축이 되고, 일부 중도·진보 세력이 가세한 모양새이다.

통합당의 현역 의원 의석수는 한국당 105명, 새보수당 7명, 전진당 1명 등 113석으로 여당인 민주당(129석)에 이어 원내 2당이다. 여기에 한국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5석)을 합하면 118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재외선거 신고자 17만7천명 20대 총선보다 10.9% 증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자 수가 17만709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가 이날 오전 7시까지 집계한 결과 이들 가운데 유학생·해외파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부재자는 14만7175명, 외국영주권자가 대상인 재외선거인은 2만9924명이었다. 이는 전체 추정 재외선거권자(214만여명)의 8.24% 수준으로, 지난 20대 총선보다 10.9% 늘어난 것이다.

재외 선거인 명부 등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작성한 후,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내달 16일 확정된다.

/연합뉴스

총선 라운지

전정배 '광주여 정신 바짝 차리자' 책 발간

대안신당 전정배(광주 서구) 의원이 최근 '광주여 정신 바짝 차리자'는 책을 발간했다. 전 의원은 이 책을 통해 호남과 전국의 개혁적 국민들이 지역평등 비전을 갖춘 신주류 세력으로 하여금 민주당과 (가칭)개혁공동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3년 간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특권·반칙·편법·양극화·민생 불안은 해소될 기미가 없다"면서 "특히 국정농단 세력으로 몰려 쪼들려온 기득권 세력이 어느덧 다시 힘을 되찾아 사사건건 개혁과 국정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정권의 무능이 불러온 사태"라고 현 정치권을 진단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소하 "호남은 폼다방 정치 용납 안 해"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7일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한 통합·신당 창당 움직임에 "호남은 폼다방 정치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개인의 정치적 기득권을 연장하려 이 당 저 당 굽어가는 정치인의 몸부림이 안타깝다"며 "자신들이 호남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호남의 정치적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호남이 원하는 가치를 대변하고 중단 없이 개혁을 선도할 정당, 정의당을 지지해달라"며 "정의당이 호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진보 정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고규석 기자 yousoo@

서갑원 "지역대학 우수 인재 할당 법제화"

더불어민주당 서갑원 순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7일 "지역대학 우수 인재 할당제"를 법제화해 공공기관 및 지역 대기업을 중심으로 청년 취업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이날 청년창업 공간인 순천 청춘스타에서 열린 대학생 정책 간담회에서 "지역 내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 대학로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는 학생들 요청에 같이 언급했다.

서 예비후보는 "지역 청년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내외 유출을 최소화해 청년이 돌아오는 순전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승남 "패각 쓰레기 자원화 센터 설립"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7일 "패각 쓰레기를 대량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패류양식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패각 쓰레기 고부가가치 자원화센터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패류(굴, 홍합, 조개, 전복, 가리비 등) 생산량은 매년 30~5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남은 패류 양식·가공생산으로 인해 연간 약 5만2000t의 패각이 발생하고 있지만 처리량은 30%에 불과해 매년 패각쓰레기가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명진, 5·18 왜곡 처벌법안 처리 촉구

대안신당 김명진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7일 "해가 넘어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법사위 계류 중인 5·18역사왜곡 처벌에 관한 법안들이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처리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최근 황교안의 5·18사태 망언, 이종명 핑수제명, 5·18왜곡 게임방 방지, 지만원 불구속 처리 등 5·18을 비하·왜곡하는 발언과 행태들이 계속되면서 광주 시민은 물론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제재 장치를 통해 이상 5·18에 대한 왜곡과 폄하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시민단체 "임종석, 총선 출마해야"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총선 출마를 촉구하는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했다.

평화통일연원 국민포럼 광주 회원들은 17일 광주시의회에서 "평화통일이 온 국민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앞으로의 가장 큰 과제라고 볼 때 통일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오고 그 분야에 역량과 소신을 갖춘 임 전 실장이 정치를 떠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사료된다"며 "작금의 형실에서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당의 부름에 고사함은 정치인으로써 도리가 아니고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임 전 실장이 국민의 부름에 하루 빨리 응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통과 통합의 지도력으로 그의 비전과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며 "임 전 실장이 21대 총선에 적극 출마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선관위, 정당명 인쇄된 봉투 나눠준 당직자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4·15 총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 명칭과 정색이 인쇄된 비닐봉투와 정책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원외정당 당직자 A씨를 지난 14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원외정당 소속 A씨는 선거구내 상인들에게 '손님에게 물건 싸 주는데 쓰라'며 정당 명칭과 정색이 인쇄된 비닐봉투 1만4350매(31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정책홍보물 1만2000매를 해당 비닐봉투에 담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3조, 113조)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전남선관위는 다만 기부물품을 받은 상인들이 특정 정당이 나 후보를 돕겠다는 목적이 없이 취한 이익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 방침"이라며 "선거법외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khh@

지난 20년간 14,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와 재테크 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 전공)

전남대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평생교육공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방송국 경제특강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초청특강

특 전
자격취득 희망시 국가공인 비딩경영관리사, 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 분석사 자격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 후 모임체 결성하여 지도함

강의기간: 2020년 3월~6월(15주)
정원: 선착순 50명 마감

조선대 평생교육원
- 부동산컨설팅과 재테크 매주(수) 19시~21시
- 접수처: 062)230-7700~2

광주교육대 평생교육원(무료주차)
- 부동산 실전경매 매주(목) 19시~21시
- 접수처: 062)520-4243

부동산강의 및 부동산경매 관련 상담
010-5613-1808 정영수 박사

돈되는 부동산(NPL)과 실전경매

14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조선대: 3월 19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주식투자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자 고수의 볼.

2020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2020년 2월 1일~ 2020년 2월 28일
-교육기간: 2020년 3월 19일~2020년 6월 11일
매주 목요일 주간10:00~12:00 야간 7:00~9:00
-수강료: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H. 010-9416-1200, T. 062)230-7700-2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책,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 과정)

- 일 시: 2020. 3. 3(화) 오후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0. 2. 25(화) 오후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2020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30기)	광주교육대학교(21기)
모집/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요일 오전반 2020. 3. 6(금) 09:10 (중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20. 3. 7(토) 09:10 (고급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요일 오후반 2020. 3. 6(금) 14:10 (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20. 3. 7(토) 14:10 (고급반)
모집기간	2020. 1. 23(목) ~ 3. 7(토)	
수업기간	2020. 3. 6(금) ~ 2020. 8.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 ~ 13:00 • 오후반 14:10 ~ 18:00	
수료 후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 학교 (방과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 ~ 사법) 취득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예금주: 광주여대) • 광주은행: 148-107-307803	₩ 360,000(예금주: 광주교대) •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명공): 010-3614-41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 062)520-4243 • 지도교수(선명공): 010-3614-4160

http://always.kwu.ac.kr http://www.gnue.ac.kr/